

전주한옥마을 1000만 관광객 유치 나선다

전주시가 연간 500만명이 찾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고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이 전북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하면서 교통·숙박·청소·건축 등 각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한옥마을 일대 주민, 상가, 문화 관련 전문가 등과 수차례 토론회를 거쳐 종합대책을 세웠다.

종합대책은 크게 ▲한옥마을 관리·운영체계 강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맛스러운 한옥 관리 ▲전통문화 관광콘텐츠 확충 ▲지속가능한 슬로시티 조성 등 6개 분야 18개 사업이다.

우선 한옥마을 관리·운영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한옥마을 보존과 발전을 이끌고 한옥마을 거주민을 위한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한옥마을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한 전담 직원을 한

시, 6개 분야 18개 사업 종합대책 마련

금연거리 확대·주차장 5000면 추가 조성

민원해결 전담직원 배치·혼잡제 도입 등

옥마을에 배치하고, 한옥마을 혼잡제를 도입하는 한편 한옥마을이나 풍납문 광장에서 대규모 축제 또는 행사 개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쓰레기 수거 시간 연장, 상가의 쓰레기통 의무 비치, 개방 공중화장실 확대와 24시간 운영, 금연구역 확대, 소방안전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치고 불쾌감을 주는 길거리 금연을 막기 위해 한옥마을의 금연거리를 내년 2월부터 확대

한다. 지난해 금연거리로 지정된 은행로(700m)와 태조로(600m)에 이어 새로 추가되는 금연거리는 한옥마을 일대의 전통성당길, 경기전길, 어진길, 최명회길, 한지길, 오목대길, 향교길 등 7곳이다. 시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단속, 적발된 흡연자에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또한 1000면 규모의 치명자 성지 주차장을 비롯해 총 6곳에 5000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전주역과 터미널을 거치는 한옥마을행 전용 시내버스 노선을 개설하는 등 교통대책도 내놨다.

이와 함께 포화상태인 한옥마을 방문객을 옛 도심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권으로 확산시켜 한옥마을 관광객이 전주시 전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구상이다. 관광특구 지정과 관광 편의증진을 위한 도시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한옥마을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kwangju.co.kr



내 고장 먹거리, 지역에서 소비해요

곡성군-농협 곡성군지부 산지 소비촉진 협약

농협 곡성군지부(지부장 문영홍)와 곡성군청(군수 유근기), 옥과농협(조합장 박상철), 송원술밭구이(대표 한연택)는 지난 4일 옥과농협 회의실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산지 소비촉진을 위한 공동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곡성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산지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운동'을 확산시키고,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食)사랑농(農)사랑' 운동을 확대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안전 먹거리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동협약을 맺은 각 기관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줄여 영양 및 신선도가 뛰어난 지역 농·축산물 소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옥과농협 박상철 조합장은 "이번 협약체결은 '식사랑농사랑 운동'을 통해 우리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농업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뜻깊은 행사"라며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kwangju.co.kr



‘막상막하’

지난 10월 30~31일 5일간 정읍 내장산문화관광 농경문화체험센터 인근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제18회 정읍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에서 싸움소 두 마리가 격돌하고 있다. 대회결과 백두급(771kg 이상)은 김진곤(경남 김해)씨의 '비손'이, 한강급(671kg 이상~770kg 이하)은 최진호(경북 청도)씨의 '백머리'가, 태백급(600kg 이상~670kg 이하)은 강봉순(경남 진주)씨의 '머구리'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조합원 사망” 속여 경조비 빼돌린 조합장

동광양농협조합장 700만원 착복 '물의를 뒀다'

농협중앙회의 경·조사 전수 감사결과 광양시 동광양농협 조합장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경조금을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동광양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말 농협중앙회 특별감사에서 S 조합장이 조합돈 700여 만원을 130여 명의 조합원 경조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꾸며 개인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최근 환수조치됐다.

S 조합장은 조합원의 경·조사가 없는데도 허위로 꾸며 1

년10개월 동안 117건(자녀결혼 16건, 사망 34건, 입원 67건) 7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S 조합장은 농협 담당자로부터 경조금 명목으로 수령해 조합원의 경·조사에 전달하지 않고 착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현재 생존한 조합원을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부의금을 횡령한 건만도 18건이나 되고, 동일인이 2개월 사이 중복사망 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S 조합장은 모 조합원 자녀가 초·중학생인데도 결혼한다고 하며 축의금 명목으로 경조금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조합 담당자들은 조합장의 지시에 따른 지출

을 했음에도 행여 불이익을 입을까 노심조사하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합원 A 씨는 "S 조합장이 신심성 예산을 사용해 담당 직원들이 곤욕을 치른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그래도 믿었다"면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며 비상식적 조합운영에 분통을 터뜨렸다.

S 조합장은 "통상적인 관례로 생각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며 "감사에서 지적한대로 전액 환수했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지역관광 미래를 묻다

목포대, 오늘 전남지역발전 포럼

목포대학교는 6일 오후 2시 교수회관 2층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중·장기 관광정책 방향과 지역관광의 미래'를 주제로 '제3회 전남 지역발전 포럼'을 연다. '전남 지역발전 포럼'은 목포대가 전남권 지자체 및 산업체와 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하는 새로운 산·학·관 협력 모형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사이다.

앞서 지난 6월과 9월에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식품산업 발전방향'과 '농림식품 분야 R&D 중·장기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두 차례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은 전남도와 22개 시·군 지역관광 정책 담당 공무원, 관광·사학·체육관련 전공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조정실장(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중·장기 관광정책 방향과 지역관광의 미래'라는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심원섭 목포대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특성화사업단장이 좌장을 맡아 정부 중·장기 관광정책의 비전과 지역관광의 활로 모색, 지역관광 연구개발사업 수행 관련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목포대는 관·학 협력을 통한 전남권 지역발전 전략 산업 육성 및 발전 정책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지역관광 분야 연구자 및 지자체 행정 담당자에게는 중앙 정부의 정책방향 이해도 제고와 함께 중·장기 관광정책 개발의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is0533@kwangju.co.kr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한빛타워 ----- 분양/임대

규모: 지하1층, 지상8층
준공예정: 2015년 5월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탁회사 자금관리로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기림유) • 시공사 | 건해종합건설(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프라임타워 ----- 분양/임대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준공예정: 2015년 2월

- 유흥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델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립인프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다성드림메디컬타워 --- 임대

규모: 지하1층, 지상6층
준공예정: 2015년 3월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가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유)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 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